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經營學 碩士 學位論文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 조정 전후 차이

중심으로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趙偉航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 조정 전후 차이
중심으로

지도교수 : 김 학 열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趙 偉 航

趙偉航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4년 2월



주 심 경영학박사 김진황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이진수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김확열 (인)

목 차

요약	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제1절 이론적 배경	4
제2절 선행연구	16
제3장 연구설계	25
제1절 연구가설	25
제2절 연구모형	27
제3절 변수측정	28
제4절 표본선정	32
제4장 실증분석	34
제1절 기술통계 분석	34
제2절 상관관계분석	36
제3절 회귀분석 결과	38
제5장 결론	43
참고문헌	46
摘要	50
Abstract	52

표 목차

표 <2-1> K-IFRS도입의 개요	6
표 <2-2> K-IFRS과 K-GAAP의 비교	8
표 <3-1> 선행연구 중의 주요변수	29
표 <3-2> 대우건설의 비교재무제표	30
표 <4-1> 기술통계량	34
표 <4-2> 상관계수	37
표 <4-3>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제외	38
표 <4-4>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포함	40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 중심으로

조위항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요약

본 연구는 2010년 KOSPI 상장기업 중 IFRS를 조기 도입하지 않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조정전후의 차이가 중심으로 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감사보수가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의 절대 값(ADJ)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K-IFRS 도입으로 당기순이익 조정 전후 차이가 클수록 감사보수가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K-GAAP 기준 하의 재무제표 평가방법이 역사원가 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나 재산가치의 변동을 즉시적으로 반영하지 못 한다. 반면에 K-IFRS을 도입하면 평가방법은 공정가치로 변하고 가치변동은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가 크면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감사인이 직면한 감사위험은 높아진다.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인에게 신중한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인은 자신의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 감사인은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미와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차별적으로 조기 도입 기업들을 제외하고 조기 도입

하지 않은 기업들을 연구하였다.

둘째, IFRS 도입과 관련한 정책기관이 IFRS도입 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감사시간이나 K-IFRS 도입여부를 중요한 변수로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 중에 중요한 요소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감사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더 연구의미를 갖는다.

키워드: 국제회계기준, 감사보수, 당기순이익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특정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회계기준’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에서는 14개 회사가 2009년부터 선택적으로 IFRS 조기 도입하였고, 2010년에는 40개 회사가 조기 도입하여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K-IFRS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1999년 9월에 한국회계기준원(KAI)을 설립하였다. KAI는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5일에 발표된 ‘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2007년 12월에 K-IFRS를 제정·공표하였고 2011년부터 상장법인 및 주요 금융회사가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K-IFRS는 KAI 하위 조직인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IFRS를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K-IFRS의 도입으로 주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되었고,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 되었다. K-IFRS는 기존 K-GAAP에서 채택한 규칙중심기준과 달리 원칙중심기준이다. 기존의 회계기준인 K-GAAP는 규칙중심기준으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제공되지만 원칙중심기준인 K-IFRS는 회계처리의 재량권이 넓게 허용된

다. 때문에 IFRS 도입은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업무에 더 많은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한다. 정영기(2012)의 연구에서 K-IFRS을 조기 도입하여 적용하는 기업들이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그리고 감사투입시간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를 조사하였다. 지찬영(2012)의 연구에서는 원칙중심기준의 영향 중 복잡성과 지침의 부족, 통일된 해석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감사보수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K-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IFRS 도입을 위해서 2010년에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IFRS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도 공표하도록 하였다. 회계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즉 회계기준의 변경은 투자자의 회계정보 예측에 영향을 미치고 변경차이가 클수록 투자자가 회계정보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KOSPI 상장기업 중 IFRS를 조기 도입하지 않은 비금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대표적인 지표인 당기순이익의 변화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화가 감사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재무적 자료는 (주)나이스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KIS-VALUE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감사보수와 당기순이익 조정 금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KOSPI 상장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여 수집되었다. 실시한 실증분석은 상관관계분석

과 회귀분석이며, Spss 19.0의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IFRS 도입으로 감사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주로 당기순이익의 조정전후 차이가 중심으로 IFRS 도입에 따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설계로서 연구가설과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과 변수 측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가. K-IFRS

(1) K-IFRS 도입 배경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기업의 재무 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언어인 회계처리기준이 IFRS과 달리 외국인 등이 한국기업의 회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어왔다. 현재 세계는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요구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미 100여 개국이 IFRS를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그 동안의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회계기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실정에 맞게 해석·적용되었다.

K-IFRS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K-IFRS적용을 희망하는 비상장회사는 K-IFR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한번 IFRS를 적용하기로 한 비상장회사는 향후 비상장회사기준서로 회계기준서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K-IFRS가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므로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상장회사의 종속회사(비상장·소규모 종속회사)도 K-IFRS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처음부터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K-IFRS를 적용할지 혹은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차원에서는 비상장회사기준서를 적용하되 연결결산업무 수행시 비상장회사기준서와 K-IFRS와 차이조정 과정을 거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IFRS의 적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2009년부터 K-IFRS를 적용하였으며 201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반드시 K-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IFRS의 적용 1년전부터 IFRS의 도입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IFRS의 최초 적용 재무정보에 1년 전 차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9년 혹은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2008년 혹은 2010년부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와 IFRS를 적용해서 작성할 경우의 차이내역에 대해 비교정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의 흐름은 <표 2-1>과 같이 요약되어진다.

(2) K-IFRS과 K-GAAP의 비교

IFRS가 등장하기 전까지 각국의 GAAP은 대부분 각 나라, 각 산업에 적합한 실무 중심의 회계원칙이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제정하다보니 나라별, 산업별 실무지침을 하나의 회계기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IFRS는 재무보고에 포함

<표 2-1> K-IFRS도입의 개요

IFRS 도입	◆2006년 2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과 회계기준원이 IFRS 도입 로드맵을 공식 선언
도입 방식	◆국제회계기준을 특정 시점부터 일괄 도입 (59개 국제회계기준 및 해석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정 고려
적용대상 기업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적용(비상장기업도 적용 허용) ◆201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 적용 (2009년부터 선택적용 허용, 금융기관은 선택적용 제외)

출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26:2010

되어야 할 내용을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계산절차나 표시 방법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IFR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기존의 GAAP과는 달리 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사용되므로, 기말 재무보고는 물론 반기나 분기 공시를 할 때에도 연결재무제표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 미만의 기업은 분반기 연결공시가 2013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연결대상회사를 결정하는 ‘지배력 기준’이나 지분법대상회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력’ 기준이 GAAP과 약간씩 상이하다. 기존의 GAAP에서 취득원가로 계상하던 자산/부채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기존의 원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IFRS에서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항목은 ① 금융상품·부채, 유·무형자산, 투자부동산, ②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③ 확정급여채무(K-GAAP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같다.

기존의 GAAP에서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이러한 공시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기본적인 공시내용이 연결기준으로 바뀔 것이며 상기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나 영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가 공시되어야 하므로 IFRS 상에서는 감사보고서의 분량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FRS에서는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 재무제표에서 제외되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 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의 GAAP 상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조, 계정항목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의 경우 1) 유동성배열법 2)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3) 혼합표시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차변에는 비유동항목을 먼저 대변에는 자본항목을 부채보다 먼저 작성할 수도 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도 1) 단일포괄 손익계산서 2) 손익계산서와 별개의 포괄손익계산서 2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하며,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꼭 공시되어야 할 항목 이외에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의 항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도 기능별 분류(기존의 GAAP처럼 매출원가, 판매비 등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 성격별 분류(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급여, 광고비 등)로 공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K-IFRS과 K-GAAP의 차이점을 아래의 <표2-2>로 제시할 수 있다.

<표 2-2> K-IFRS과 K-GAAP의 비교

주요항목	GAAP	IFRS
연결의 범위	대주주이면서 30% 초과 소유지분 70억 미만 기업 제외	50%초과 소유지분 70억 미만 주식회사뿐 아니라 특수목적기업(조합, 파트너십, SPC)도 포함
지분법 적용 대상	중대한 영향력 판단 시 투자회사의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을 포함	중대한 영향력 판단 시 투자회사의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을 제외
유형자산	원가법만 적용	원가법과 재평가법 중 선택 재평가지 평가차익은 자본에 보고
투자부동산	원가법만 적용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 공정가치법 선택시 평가차익은 당기손익으로 보고
감가상각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의무 없음, 감가상각방법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으로 처리	매 회계연도말에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 감가상각방법 변경도 회계추정변경으로 처리
자산손상 평가	일반적으로 손상징후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없음 회수가능가액(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총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손상 인식	손상징후에 대해 매보고기간말 검토 의무 있음 회수가능가액(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순액과 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손상 인식 손상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공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의 양도	일반적으로 매각처리 가능	매각처리 기준 강화로 차입처리 빈도 증가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 등의 인식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50% 이상)경우로 완화
영업권	20년 이내의 내용연수로 상각 사업결합 시 무형자산을 영업권으 로만 인식	상각하지 않고 기말 손상여부만 평 가 사업결합 시 영업권과 별도로 측정 가능 한 만큼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을 공정가치로 인식
충당부채와 이연법인세부채 등의 인식기준	자원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경우	자원유출가능성이 높은 (50% 이상) 으로 완화
포인트 마일리지	판매관리비와 충당부채로 인식	공정가치 만큼 수익을 이연시키고 포인트 사용시점에 수익 인식
퇴직급여부채	연말 일시 퇴직을 가정하고 지급 할 금액을 퇴직급여부채로 인식	보험수리적 가정에 미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로 측정
외화환산	기능통화의 개념 사용하지 않고,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손 익을 당기손익으로 보고	기능통화의 개념하에 비기능통화에 서 기능통화로의 환산손익은 당기손 익으로, 기능통화에서 보고통화로의 환산손익은 자본으로 보고
아파트 등 예약매출	진행기준으로 수익 인식	완성인도기준으로 수익 인식
상환우선주	자본으로 분류	부채로 분류
채권채무조정	기존채무의 연속으로 보아 조정부 분을 역사적원가로 측정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새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새 채무를 공 정가치로 측정
생물자산과 수확물	취득원가로 측정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

출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97:2010

(3) K-IFRS도입에 따른 영향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 또는 예상되는 변화를 투자자, 채권자, 재무분석전문가 등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비교가능성의 변동

비교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이상으로 재무제표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동시에 제정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르면, 주요 질적 특성으로서 비교가능성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도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비교정보’를 포함할 것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표시의 계속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다수의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는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비교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¹⁾

첫째, 먼저 기간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전 기간과 다른 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기간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다.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것과 2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이 어려운 경우 소급할 수 있는 가장 이른

1) 장석일, 외감법 개정내용 및 IFRS 관련 주요 현안사항,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3: 2009; 여은정, 고윤성, 김지홍,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175: 2007; 조장연, 강병민,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2(1), 153: 200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 1001호

회계기간의 기초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기업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국내기업들의 비교가능성과 국내외 기업간 비교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국내기업들의 비교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국내 기업회계기준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차별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국제 회계기준은 비상장기업 대비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수요가 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국제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논리로 회계처리부담 경감을 위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향후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동일한 업종일지라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로 언급했던 ‘회계처리의 다양성 존중’으로 인해, 동일한 사건이나 거래일지라도 선택가능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 실체간 비교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국내외기업 간 비교가능성의 경우에는 앞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재무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로 인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나) 분석대상 범위의 확대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존재하는 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강제하고 있다.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 관점에서 본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간 우열과는 별개로,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는 재무정보 대상범위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계열(또는 연결)단위 분석이 보다 일반화 되고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에도 지배종속관

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보조적인 절차로서 계열단위 분석을 수행하였을 것이나, 향후에는 계열단위 분석이 주가 됨에 따라 분석의 깊이와 폭이 훨씬 확대될 것이다.²⁾

(다) 연결공시제도 도입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종속기업의 있는 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모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재무제표로서의 연간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늦어도 2011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나, 중간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는 기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부터 작성해야 하며,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연결공시제도 정착이 성공적일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경제적 실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³⁾

나. 감사보수

(1) 감사보수 이론

감사보수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된다.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시장은 과점적인 성격을 지니며 감사인들은 감사보수에 따른 가격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

2)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101: 2009

3)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33: 2009

다. 감사의견은 품질이 외관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아니다. 물론, 비적정 의견의견을 받아야 할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는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부실 감사는 추후에 지적이 될 수도 있겠으나 감사는 대부분 감사과정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정의견을 받는 감사의견이 95퍼센트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상품이 아닌 것이다. 4)

경쟁요인은 품질과 가격인데 품질로 차별화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저가경쟁이 초래된다. 이는 감사용역이 공모된 이후에는 대부분 공모가액 위주의 최저가낙찰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사시장의 현상은 일반적인 정부공사와 일치한다. 일단 공모에 의해서 공사를 수주하면 수주하는 시점에 공사수익은 결정되며 이 공사로 부터 얼마의 이익을 남길 것인지는 원가절감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비용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마치려 할 것이다. 공사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인적자산을 운용하는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감사시간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과도한 원가절감으로 공사가 적절치 않게 수행되지 않았다면 부실감사를 초래할 것이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를 수행하도록 함이나 금감원이 감리를 수행함은 동일한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다.

적정 감사보수는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수에 기초한다. 단정적으로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모형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즉,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보아서 횡단면적인 방법과 시계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감사보수결정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시계열적인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

횡단면적인 방법이란 감독원이 제시한 대로 직전연도의 감사보수에 기초

4) 손성규, 박영사,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 255: 2006

한 금액이지만 직전연도의 감사보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추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공색한 대답밖에 주어질 수 없다. 결국은 이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느 시점에서인가 횡단면적으로 또는 매우 임의적으로 감사보수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시계열적인 접근 방법의 단점은 직전연도의 감사보수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적절치 않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후 연도의 감사보수가 적절치 않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보수가 너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보수를 제시함에 있어서 최소감사보수를 제시할 수 있다. 즉, 감사보수가 너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정책적으로 최대감사보수를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보수가 너무 낮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감사보수를 설정할 수 있다.

감사보수의 덤핑 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저하는 최저가격낙찰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계약과 관련되어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는 차저가낙찰제가 있다. 즉, 가장 낮은 가액을 제외하고 그 다음 낮은 가액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저가낙찰제일 경우도 두 업체가 공모하여 첫 공모 시에는 한 업체가 매우 낮은 가액으로 응찰하여 다른 업체에게 낙찰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공모한다면 차저가낙찰제도의 장점을 쉽게 피해 갈 수 있다.

(2) 감사보수의 특성

감사보수는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보상과 감사의견 표명에 따른 법적 위험에 대한 보상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⁵⁾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보상요인은 경제학의 투입원가 측면에서 한계비용적인 의미이며, 이것은 현재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감사투입 시

5) 김성호, 감사보수 자율화에 따른 감사보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2: 2003

간기준 감사 보수 체계이다.

감사의견 표명에 따른 법적 위험 보상요인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한 후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위험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의존도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감사보수는 감사수임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감사수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감법이 실시되기 전인 1981년까지는 강제배정제에 의해 감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외감법이 실시된 1982년부터는 감사인 선임권이 감사대상회사에 있는 자유수임제도가 적용되었는데, 과거 재무부고서 '감사인의 업무에 관한 규정'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에 의해 감사대상회사의 자산 규모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와서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완전자유수임제도로 전환하였으며, 감사대상회사의 자산 규모별 수임제한은 대규모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감사의 질적관리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되었다.

감사보수는 회계감사 서비스의 수요자인 감사대상회사와 공급자문직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는 협력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이고 다소 대립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대상회사가 감사인 선임권을 갖는 자유수임제도는 감사의견을 쇼핑하게 되고, 감사인 간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감사보수 덤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할인된 감사보수에 의한 감사가 진행될 경우 감사의 품질자체가 저하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제2절 선행연구

가. IFRS 도입과 관련된 선행연구

나금운 등(2012)은 IFRS도입이 감사시간,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거래소의 상장기업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회사들 중 지배회사가 많은 KOSPI 200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주식의 수, 재무제표 조정금액과 조정지수, 비감사업무, BIG4, 계속감사 초도감사에 관계없이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감사보수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기(2012)는 IFRS 조기 도입한 58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비감사보수와 K-IFRS 적용에 따른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항목이 조정되는 금액과 이를 지수로 측정한 조정수준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의 관련성에 대해 감사보수 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사보수는 K-GAAP과 비교하여 IFRS 적용에 따른 조정수준과 복잡성 정도와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IFRS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감사인에게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K-IFRS과 관련된 업무부담이나 감사위험의 증가요인을 비감사 보수에 반영하거나 감사계약유지를 위해 즉각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K-IFRS을 조기 도입한 58개 기업중 60%에 달하는 기업들에 있어 감사보수가 도입전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하락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고혁민(2011)은 2009년 2010년 K-IFRS를 조기도입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K-IFRS 도입이 감

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K-IFRS의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K-IFRS를 도입한 기업이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보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액주주와 대주주사이의 대리인비용은 K-IFRS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육방(2012)연구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404개 A 주식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상장기업들은 IFRS 도입 후 감사보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감사보수를 조정한 분석결과에서는 오히려 감사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FRS 도입후에도 중국의 감사보수 증가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감사시장에서 급격히 증가한 회계법인수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간의 경쟁 심화로 IFRS 도입으로 늘어난 감사업무와 감사위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강선민 등(2009)은 국제회계기준도입이 기업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IFRS제정의 산과역할을 한 영국과 우리나라가 IFRS도입의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호주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표본은 2005년에 최초로 IFRS를 도입·적용한 영국과 호주의 상장기업들 중 OSIRIS데이터베이스에서 연간 재무제표 자료가 이용 가능한 170개 영국기업과 432개 호주기업이다. 영국과 호주의 IFRS의 도입으로 인한 자산, 부채, 자본 및 이익에 대한 인식기준의 변화는 일부 세부 항목들을 제외하고 큰 틀에 있어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과 호주기업들의 재무제표 항목들의 변동 정도는 향후 국내기업들이 IFRS 도입으로 경험하게 될 예상치의 대략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IFRS는 회계

방법의 다양한 대안들을 허용하고 있는데 영국과 호주의 회계환경과 사회문화적 성향이 우리와 다른 만큼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방법도 상호간에 체계적으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 변경 내용이 많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영국과 호주기업들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 유사하게 반복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용식 등(2010)은 2009년에 K-IFRS를 조기 도입한 1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기도입 유인과 도입 이후의 성과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조기도입 유인은 다음 4가지와 같다. 첫째, K-IFRS의 조기도입은 재무제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 때문이다. 둘째, 조기도입 시 제공되는 금융감독원의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셋째, 유형자산 등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목적이다. 넷째, 주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바뀌면서 이로 인한 효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김성은(2011)은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산출근거가 달라진 영업이익으로 예측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가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K-IFRS 도입기업의 도입 전과 도입 후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오차의 차이비교에서 영업이익, 순이익 항목 모두에서 재무분석가의 예측오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모수 검증 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에서는 10%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욱(2012)은 K-GAAP에서 K-IFRS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감사인의 업무에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감사인의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므로 K-IFRS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감사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K-IFRS 도입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K-GAAP 하에서 투입한 감사

시간보다 K-IFRS 상에서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효중(2011)은 K-IFRS의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2009년과 2010년에 K-IFRS을 조기 도입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검증한 결과 K-IFRS의 조기도입과 회계이익의 투명성 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IFRS 조기도입은 회계정보, 즉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IFRS의 조기도입 기업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가치관련성은 미도입한 기업의 가치관련성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균 등(2012)은 2009년도에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K-IFRS와 K-GAAP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K-IFRS의 도입으로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되고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되는 정보환경의 변화가 주요재무비율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재무비율의 차이를 기업간, 기간간,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분석방법 및 분석에 사용한 재무제표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재무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기업간 재무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일기업에서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종류에 관계없이 재무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재무비율의 부호도 다르게 나타났다.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기간간 재무비율의 차이도 K-IFRS와 K-GAAP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동일기업과 동일기간이라도 서로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재무비율을 비교한 의사결정이 이전에 비해 복잡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대부분의 재무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분석기업과 비교기업의 종속기업의 소유여부도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戴華江 등 Dai Huajing 대화강 등, 2008) 연구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2007년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당기순이익 중심으로 상장회사가 IFRS 도입한 후에 당기순이익 조정차이 상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이익조정 현상을 존재여부를 연구하였다.

孫紅 등(Sun hong 손홍 등, 2009)은 2004-2008년 상장회사에 대해 회계기준 변경 후에 감사보수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K-IFRS 도입한 후에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상장회사를 표본으로 기준변경부도가 클수록 감사보수 증가가 더 확연히 나타남을 하였다.

Barth, Landsman and Lang(2008)는 미국을 제외한 21개국의 K-IFRS를 채택하여 적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999년-2003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국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의 질이 상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Jermakowicz et al.(2007)는 IFRS나 US.GAAP이 기존의 독일회계기준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IFRS 또는 US.GAAP의 적용으로 주식사항의 페이지수가 대략 50%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나. 감사보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정영기(2012)는 K-IFRS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보수, 감사시간, 비감사보수와 K-IFRS 적용에 따른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항목이 조정되는 금액과 이를 지수로 측정한 조정수준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의 관련성에 대해 감사보수 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사보수는 K-GAAP과 비교하여 K-IFRS 적용에 따른 조정

수준과 복잡성 정도와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며, 이는 K-IFRS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감사인에게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K-IFRS과 관련된 업무부담이나 감사위험의 증가요인을 비감사보수에 반영하거나 감사계약유지를 위해 즉각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찬영(2012)은 IFRS가 조기 적용된 2009년부터 의무 적용된 2011년까지의 표본과 조기 적용 이전 3개년(2006-2008)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 표본으로 하여 총 기업-연도 표본 3017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는 IFRS 도입으로 경영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신뢰성 확보와 명성 및 전문성에 대한 가치 향상에 대한 생각이 기업과 감사인 모두 일치하여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나왔다.

이은신(2010)의 연구에서 2010년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58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K-GAAP에서 K-IFRS로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및 비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보수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사보수는 K-IFRS 조정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주석공시사항의 증가로 측정한 K-IFRS 복잡성은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주현(2011)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코스피 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사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인 교체 후 초도감사를 포함한 감사초기에는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사시간이 증가하지만, 계속감사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감사인의 전문성이 증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고혁민(2011)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K-IFRS를 조기 도입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K-IFRS 도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K-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K-IFRS의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K-IFRS를 도입한 기업이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보수가 높게 나타났다.

신용준 등(2010)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비금융업에 속하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소송위험과 재무위험의 대응변수로 재무제표 왜곡가능성 확률, 재무위험을 나타내는 피감사기업의 파산가능성 점수(KISCORE), 위험의 종합적 평가인 피감사기업의 회사채 신용점수(CreditScore)를 사용하여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소송위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사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왜곡가능성 확률이 클수록 감사보수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피감사회사의 재무위험을 나타내는 KISCORE는 감사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험측정 전문가 집단이 책정한 위험의 종합적 평가인 CreditScore는 감사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권수영 등(2005)은 감사인이 Big4와 제휴관계에 있는지의 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회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감사인의 규모와 감사시간은 모두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결과로 나타났다.

Francis(1984)는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대형회계법인들이 경쟁적인 시장 상황 하에서 높은 품질의 감사를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감사보수를 얻는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Francis and Stokes (1986) 연구에서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산규모, 매출에 대한 수출의 비율,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율, 당기 손실 발생여부, 과거의 감사의견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unic(1980)는 감사시장에서 대형회계법인이 독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종속회사의 수, 소속된 산업의 수, 해외자산 비중, 자산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차지하는 비중, 과거 손실여부, 그리고 조건부 한정 의견 여부가 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형회계법인 여부는 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伍利娜(Wu lina 오리나, 2003) 연구에서 2000년-2001년 중국에서 282개 상장회사들을 표본으로 감사보수의 영향요소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감사보수를 영향하는 요소가 기업규모, big5회계법인, 자본이익률을 포괄한다고 나타났다.

劉意, 徐建(Liu Yi 유의, Xu Jian 서건, 2012) 연구에서 2005년-2007년 중국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경영위험과 재무위험은 감사보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감사보수를 정할 때 경영위험과 재무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魏振 (Wei zhen 위진, 2010)는 2005년-2009년 중국 상하이거래소에서 상장한 기업들의 상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요소와 감사보수의 관계를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결과는 기업규모, 기업복잡성, 비감사서비스, 감사인종류, 감사인 변경 등 요소들은 감사보수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최관, 백원선(1998)은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서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BIG6제휴법인과 국내법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분석하였다. 양 감사인 유형 간에 감사보수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외부감사보수는 감사보수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감사보수에 감사제품의 질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가설

Lambert, Leuz and Verrcchia (2007)연구에서 기존회계기준(GAAP)에 대해 투자자는 회계정보가 기업재무상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IFRS) 이용할 때 투자자는 즉시 회사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를 회계기준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효과이라고 제시한다. 이런 일시적인 효과는 틀림없이 감사보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영기(2012)는 K-IFRS의 도입은 감사인에게 있어서 규제 및 공시환경에 대한 중요한 변화로 인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클수록 감사인에게 더 큰 감사위험요인으로 인식될 것이다.

GAAP 기준 하에서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회계정보에 의하여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황과 감사인 자신의 감사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기준 변경 초기에서 이러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인이 직면한 회계정보의 정확성이 많이 낮아질 것이고, 만약 최종 발표한 감사의견이 적당하지 않으면 감시기관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기준 변경 전보다 감사위험 또한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투입의 반대급부로서 감사인은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할 것이다.

IFRS 도입 전에는 자산 인식기준인 역사적원가에 따르면 매년 자산 가

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없고 자산의 가치 변화도 없지만, IFRS 도입 후 자산 인식기준이 공정가치로 변화함에 따라 시장가격을 즉시 반영해야 하고 자산가치를 매년 재평가하기 때문에 감사인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GAAP 기준 하에서 역사원가로 평가해서 자산의 가치변화를 반응 못 하기 때문에 감사인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감사위험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고혁민(2011)의 연구 따르면 K-IFRS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통제위험이 높아져서 감사위험이 커지고, 감사노력과 감사 투입시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 시 K-IFRS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당기순이익은 투자자들의 투자회복 크기 판단의 기본요소이고, 기업 관리자에게는 운영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GAPP 기준하의 당기순이익과 IFRS 기준하의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값을 독립변수로 선정한다. 만약 신규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 차이값이 즉 당기순이익 조정 전후 차이가 크면 회계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감사과정도 복잡해지며 감사인이 부담하여야 할 감사위험은 높아질 것이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감사인은 더 많은 감사보수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IFRS 도입에 따라 당기순이익 조정 전후 차이가 클수록 감사 보수 더 높을 것이다.

제2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IFRS 도입에 따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다음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FEE = \beta_0 + \beta_1 ADJ + \beta_2 BIG4 + \beta_3 SIZE + \beta_4 ROA + \beta_5 INVERC + \beta_6 TIME$$

변수설명:

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ADJ: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의 절대 값,
$$\left| \frac{GAAP\text{당기순이익} - IFRS\text{당기순이익}}{GAAP\text{당기순이익}} \right|$$

BIG4 : 더미변수, BIG4회계법인 이면1, 아니면 0.

SIZE : 기업규모,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ROA : 총자산이익률,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INVERC : 사업의 복잡성, $\frac{\text{매출채권} + \text{재고자산}}{\text{총자산}}$

TIME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감사보수(FEE)이다. 독립변수는 당기순이익 조정 전후의 변화비율의 절대값(ADJ)이다. 통제변수는 BIG4회계법인 여부 (BIG4), 기업규모(SIZE), 총자산수익률(ROA), 사업의 복잡성(INVERC), 감사시간(TIME)이다.

모형 중의 모두 변수들은 <표3-1> 선행연구 중의 주요변수들을 바탕으로 회귀식에 투입한다.

제3절 변수측정

가. 종속변수의 측정

모형에서 종속변수 감사보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해당기업의 2010년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보수 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사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나. 독립변수의 측정

IFRS 도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을 공시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여 2010년 GAAP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과 IFRS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GAAP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얻은 당기순이익 변화비율을 사용하였다. 당기순이익 조정 전후 당기순이익의 증감여부를 상관없이 당기순이익의 차이비율로 취한 절대값을 사용하였다.⁶⁾

6) <표3-2>은 대우건설의 과거회계기준으로부터 K-IFRS으로의 전환에 따른 2010년 12월 31일 공시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조정내역에 대한 비교재무제표이다.

<표3-1> 선행연구 중의 주요 변수

제목	저자	변수명
계속감사기간과감사시간및감사보수	조주현(2011)	AHOUR , AFEE , TENURE, SIZE , BIG4 , CON, CONFM, INVREC , EXPT, ISSUE, LIQ, LEV, OPN, ROA , LOSS, GRW, FIRST, LARGE, FORN, MARKET
감사시간과감사보수가이익조정에미치는영향	권수영 등(2006)	DA, ABSDA, HOUR, LNHR , ABNHR, FEE, LNAE , UNITFEE, FDEP, NAUD, BIG , LIST, ASST, LNASST, FRGN, INVREC , LEV, FIN, ACQ,GRW,CFO
비상장기업의 전기 한정 의견, 감사 의견 개선 및 감사보수와의 관련성	우광욱 등(2008)	LAFEE , PREOP, INITIAL, DESIG, ROTATION, LSIZE, LEVER, LOSS, ROE, CHNI, WC, QR, DEFICIT, INVREC , CFO, BIG , FOREIGN, ABSTA, SHARE, CONSOL, BOARD, SMALL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 KOSPI200 중심으로	나금운 등(2012)	AT, SIZE , FOOT, ReBS, BePL, ReCoBS, ReCoPL, NonAS, BIG4 , FIRST
K-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감사인 규모를 중심으로	지찬영 (2012)	AFEE, ABAFEE, BIG4 , KIFRS, SIZE , LEV, FRN, INVREC , OPN, LOSS, FIRST
IFRS전환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이은신 (2010)	ln(AF) , ln(TIME) , ln(TAF), ADJ , NOTE, ln(SIZE) , SQ(SUBS), LOSS,MB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	정영기 (2012)	ln(AF) , SIZE , EMPLOY, SUBS, LEV, OPINION, BIG , FIRST
K-IFRS도입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에 미치는 영향	김성은 (2011)	AFE, FB, IFRS, ROE, MTB, LOSS, BIG4 , SIZE , LEV, NUM

<표3-2>

구분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과거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9,214,340	5,893,878	3,320,462	(749,023)
조정액:					
도급공사 채권채무 전환	(*1)	237,335	237,335	-	-
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사업 인도기준 전환	(*2)	17,857	35,605	(17,748)	(10,504)
부동산 간주원가 적용	(*3)	357	-	357	(3,684)
비한정 내용연수 사용수익권 상각누계액의 환입	(*4)	1,559	-	1,559	388
금융보증부채의 인식	(*5)	51,326	51,326	-	-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평가	(*6)	-	(23,485)	23,485	3,301
연차보상비의 인식	(*7)	-	9,700	(9,700)	-
투자유가증권,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평가차이	(*8)	(86,459)	-	(86,459)	(82,580)
법입세효과	(*9)	23,174	-	23,174	28,501
조정액 합계		245,149	310,481	(65,332)	(64,57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9,459,489	6,204,359	3,255,130	(813,601)

과거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은 빼기 K-IFRS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 나누기 과거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은 얻는 변화율의 절대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ADJ = \left| \frac{GAAP\text{당기순이익} - IFRS\text{당기순이익}}{GAAP\text{당기순이익}} \right|$$

다. 통제변수의 측정

통제변수 BIG4회계법인 여부(BIG4)는 감사보수에 대한 측정치로서 BIG4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회계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차별화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형회계법인은 소형회계법인과 비교하여 감사의견 표명의 합리적 확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투입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할증된 감사보수를 청구할 것이다(조주현, 2011). 미국의 BIG5와 제휴관계에 있는 법인의 감사보수가 감사시간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적으로 높음을 관찰함으로써 감사보수 프리미엄이 감사시간에 대한 보상 이외에 BIG5가 가지고 있는 높은 감사품질에 대한 평판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권수영 등, 2005).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이해관계자가 많고 외부감시기능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높은 질적수준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보고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규모가 큰 기업은 재무정보의 질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IFRS의 도입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우재, 오광욱, 정석우, 2010). 본 연구는 총자산에 자연로그 값을 취하고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Simunic(1980)연구에서 총자산수익률(ROA)은 재무건전성의 대용치로 간주해서 감사보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고 하였다. 피감사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증가하면 감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감사보수와 부(-)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이세용과 송혁준, 2005). 본 연구는 총자산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고 감사위험에 대해 검증한다.

사업의 복잡성(INVERC)은 총자산에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사업복잡성을 측정하는 통제변수이다. 감사대상기업의 재고자

산과 매출채권이 증가할수록 실사, 조회 및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된다. 또한, 이들 항목의 경우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 감사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더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최관, 배원선, 1998; Simunic, 1980).

감사시간(TIME)은 자연로그 값을 취하고 통제변수로서 사용하였다. IFRS 도입은 주식수의 증가와 재무제표 재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나금운, 조유근, 신춘우, 조승제, 2012). 감사시간 많으면 감사보수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제4절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10년 KOSPI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기준으로 조기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중에 사업보고서에 대해 GAAP와 IFRS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교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을 표본으로 이용한다.

표본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본선정 조건:

-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한 기업
- K-IFRS 조기 도입기업 제외한 기업
- kis-value에서 필요한 회계정보 수집이 가능한 기업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과 관련된 자료수집이 가능한 기업

-회사 사업보고서에서 K-IFRS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사의 2010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비교재무제표를 공시된 기업

표본선정조건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한 이유는 재무제표의 양식, 계정과목의 성격 등이 일반제조업과 상이할 수 있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K-IFRS 조기 도입기업은 이미 K-IFRS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2010년 비교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아서 제외한다. Kis-value에서 필요한 재무자료의 수집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보수, 감사시간과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위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KOSPI 상장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여 수집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총 기업표본은 301개 이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기술통계량

<표4-1> 기술통계량

	FEE	ADJ	TIME	SIZE	BIG4	ROA	INVERC
N (유효)	301	301	301	301	301	301	301
평균	7.9511	0.1820	3.0263	11.5962	0.74	0.0542	0.2849
중위수	7.8751	0.1192	2.9600	11.5012	1.00	0.0562	0.2829
표준편차	0.3266	0.1634	0.3116	0.6327	0.439	0.0805	0.1490
최소값	6.5441	0.0163	2.3729	10.1416	0	-0.4665	0.0013
최대값	9.0969	0.6586	4.0835	13.4607	1	0.3416	0.7455
백분 위수	25	7.7404	0.0519	2.8202	11.1443	0.00	0.0285
	75	8.1319	0.2667	3.1720	11.9374	1.00	0.0947

주) FEE: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ADJ: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의 절대 값,

$$\left| \frac{GAAP\text{당기순이익} - IFRS\text{당기순이익}}{GAAP\text{당기순이익}} \right|$$

BIG4: 더미변수, BIG4회계법인 이면1, 아니면 0.

SIZE: 기업규모,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ROA: 총자산이익률,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INVERC: 사업의 복잡성, $\frac{\text{매출채권} + \text{재고자산}}{\text{총자산}}$

TIME: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검증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는 극단치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위 5%를 초과하는 값은 5%의 값으로 조정하고 하위 95% 미만의 값은 95%의 값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표4-1>에서 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모형에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표4-1>은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이며 유효표본 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백분위 수 25%와 75%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보수(FEE)의 평균은 7.9511이고 중위수는 7.8751로 나타났다. 평균(7.9511)과 중위수(7.8751)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감사시간(TIME)의 평균은 3.0263이고 중위수는 2.9600로 나타났다. 평균이 중위수보다 크며 이는 감사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를 의미하는 총 자산 자연로그의 평균값은 11.5962이고 중위수는 11.5012이다. BIG4회계법인 여부를 나타내는 평균값은 0.74로 나타났고 전체표본의 약 74%가 BIG4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총자산이익률의 평균값은 0.0542이고 중위수는 0.0562로 나타났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중인 INVREC의 평균값은 0.2850로 나타났으며 중위수는 0.2829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조정 전후차이의 절대 값의 평균값은 0.1819이고 중위수는 0.1192로 나타났다.

BIG4는 더미변수를 이용하며 0과 1로 나타냈다. 감사보수(FEE), 감사시간(TIME) 그리고 기업규모(SIZE)는 측정 변수들의 자연로그 값으로 나타내었다. 모두 변수의 평균과 중위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표본의 정규성을 충족하고 있다.

제2절 상관관계분석

<표4-2>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한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종속변수 로그값을 취한 감사보수(FEE)는 감사시간(TIME)과 상관관계수가 0.870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감사시간이 많을수록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 로그값을 취한 총자산(SIZE) 변수는 감사보수와의 상관관계수가 0.84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회사규모 크면 감사보수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IG4 더미변수는 종속변수 감사보수와 1% 수준에서 유의적 양(+)의 관계가 있고 상관관계수가 0.320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큰 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감사보수와 사업의 복잡성(INVREC)의 상관관계수는 -0.273으로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음의 관계는 예상했던 방향과 반대로 나온 결과이다. 총자산수익률(ROA)은 감사보수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값(0.46)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독립변수 당기순이익 수정 전후의 변화비율은 감사보수와의 상관관계수가 0.181으로 1%수준에서 유의적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GAAP 기준하의 당기순이익과 IFRS 기준하의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감사보수 더 높을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자연로그를 취한 감사보수는 총자산이익률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상관계수

	FEE	TIME	SIZE	BIG4	ROA	INVERC	ADJ
FEE	1						
TIME	0.870**	1					
SIZE	0.843**	0.855**	1				
BIG4	0.320**	0.332**	0.317**	1			
ROA	0.046	0.055	0.135**	0.103	1		
INVERC	-0.273**	-0.325**	-0.321**	-0.103	0.107	1	
ADJ	0.181**	0.142*	0.136**	0.090	-0.025	-0.174**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주) FEE: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ADJ: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의 절대 값,

$$\left| \frac{GAAP\text{당기순이익} - IFRS\text{당기순이익}}{GAAP\text{당기순이익}} \right|$$

BIG4: 더미변수, BIG4회계법인 이면1, 아니면 0.

SIZE: 기업규모,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ROA: 총자산이익률,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INVERC: 사업의 복잡성, $\frac{\text{매출채권} + \text{재고자산}}{\text{총자산}}$

TIME: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제3절 회귀분석 결과

$$FEE = \beta_0 + \beta_1 ADJ + \beta_2 BIG4 + \beta_3 SIZE + \beta_4 ROA + \beta_5 INVERC + \beta_6 TIME + \epsilon$$

<표4-3>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제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	3.891		19.410***	0.000
TIME	0.573	0.547	10.593***	0.000
SIZE	0.198	0.384	7.413***	0.000
BIG4	0.019	0.025	0.898	0.370
ROA	-0.171	-0.042	-1.52	0.122
INVERC	0.076	0.035	1.234	0.218
R제곱	0.796			
F값	230.031			
유의확률	0.000			

종속변수: FEE

*,**,***은 각각 5%, 1%, 0.1% 수준에서 유의함

주) FEE: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ADJ: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의 절대 값,

$$\left| \frac{GAAP\text{당기순이익} - IFRS\text{당기순이익}}{GAAP\text{당기순이익}} \right|$$

BIG4: 더미변수, BIG4회계법인 이면1, 아니면 0.

SIZE: 기업규모,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ROA: 총자산이익률,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INVERC: 사업의 복잡성, $\frac{\text{매출채권} + \text{재고자산}}{\text{총자산}}$

TIME: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ADJ변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종속변수에 영향은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통제변수에만을 투입하여 분석한다. 앞에서 제시한 모형을 참고하여, 가설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4-3>는 통제변수 감사시간(TIME)의 T-값이 10.593으로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SIZE)의 T-값이 7.413로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IG4회계법인 여부의 T값이 0.898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이익률된다. 총자산이익률의 T-값이 -1.552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회귀결과를 보이고 있다. 매출채권에 재고자산을 더한 값을 총자산으로 나누면 기업복잡성을 측정한 값이 된다. 기업복잡성(INVERC)의 T-값이 1.234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감사시간과 기업규모는 앞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일치하고 BIG4회계법인, 총자산이익률, 사업의 복잡성은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EE = \beta_0 + \beta_1 ADJ + \beta_2 BIG4 + \beta_3 SIZE + \beta_4 ROA + \beta_5 INVERC + \beta_6 TIME + \epsilon$$

<표4-4>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포함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상수)	3.891		19.502***	0.000
TIME	0.570	0.544	10.590***	0.000
SIZE	0.197	0.382	7.417***	0.000
BIG4	0.017	0.022	0.804	0.422
ROA	-0.166	-0.041	-1.514	0.131
INVERC	0.093	0.043	1.502	0.134
ADJ	0.111	0.056	2.083*	0.038
R제곱	0.799			
F값	194.585			
유의 확률	0.000			

종속변수:FEE

*,**,***은 각각 5%, 1%, 0.1% 수준에서 유의함

주) FEE: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ADJ: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의 절대 값,

$$\left| \frac{GAAP\text{당기순이익} - IFRS\text{당기순이익}}{GAAP\text{당기순이익}} \right|$$

BIG4: 더미변수, BIG4회계법인 이면1, 아니면 0.

SIZE: 기업규모,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ROA: 총자산이익률,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INVERC: 사업의 복잡성, $\frac{\text{매출채권} + \text{재고자산}}{\text{총자산}}$

TIME: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표4-4>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표본기업들은 IFRS를 도입하기 위해 2010년 비교재무제표가 공시되었다. 그 중에 당기순이익 조정전후의 차이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

다.

GAAP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과 IFRS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GAAP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당기순이익 조정전후의 변화율의 절대값(ADJ)이 된다. ADJ의 통계적인 T-값은 2.257로 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K-IFRS 도입 후 신규회계기준 간에 변동 폭이 클수록 감사보수의 증가가 더 뚜렷하다고 나타났다(孫紅 등, 2009).

감사시간(TIME)의 T-값은 10.590으로 나타났으며 P-값은 0.00으로 0.1%보다 작아서 가설이 옳다고 추론할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매우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이 IFRS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인에게 감사업무 외에도 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요구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회계감사 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감사인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Palmrose, 1986; Sharma and Sidhu, 2001). 기업규모(SIZE)의 T-값은 7.417으로 나타났으며 P-값은 0.00으로 0.1%보다 작아서 가설이 옳다고 추론할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매우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변수(TIME, SIZE)의 T-값이 <표4-3>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가 크면 감사시간과 기업규모가 큰 회사가 감사보수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권수영, 김문철, 정태진, 2005). BIG4회계법인 여부의 T-값은 0.804으로 나타났으며 P-값은 0.422으로 1%보다 가설이 옳다고 추론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형회계법인 여부는 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하였다(Simunic, 1980). 총자산이익률의 T-값은 0.131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

(-)의 회귀결과를 보이고 있다. 매출채권에 채고자산을 더한 값을 총자산으로 나누면 기업복잡성을 측정한 값이 된다. 기업복잡성(INVERC)의 T-값이 0.134로 유의하지 않은 회귀계수로 나타났으며 기업 복잡성에 대해 보상을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없다. 본 연구와는 반대로 선행연구는 감사대상기업의 채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증가할수록 실사, 조회 및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더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해서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최관과 백원선, 1998).

모형 전체적으로 보면 R제곱 값이 0.799이므로 회귀선이 감사보수 변화의 약 80%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도출된 회귀모형이 비교적 관측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F-값은 194.585로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DJ에 대한 회귀계수가 양(+)의 유의한 값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된다.



제5장 결론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회계정보의 국제적 적합성 및 신뢰성 제고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개 국가들이 국제 재무보고기준을 자국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07년 3월에는 한국에서도 정부감독기구 및 민간기구로 구성된 'K-IFRS 도입준비단'을 통해 'K-IFRS 전면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2009년부터 상장법인에 대하여 K-IFRS를 조기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상장법인에 대해 K-IFRS를 전면 적용하였다.

K-IFRS 도입을 위하여 2010년 IFRS에 따라 비교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KOSPI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기준으로 조기 도입하지 않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비교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 총 301개를 선정하여 Kis-value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된 회계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임석식 등(2009)의 연구에서는 K-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적어도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고혁민 (2011)의 연구에서는 K-IFRS를 도입한 기업이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찬영(2012)의 연구에서는 K-IFRS 도입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 조정전후의 차이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보수는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의 절대 값(ADJ)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연구가설과 일치하였다. K-IFRS 도입으로 당기순이익 조정 전후 차이가 클수록 감사보수가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GAAP 기준 하의 재무제표 평가방법이 역사적 원가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나 재산가치의 변동을 즉시적으로 반영하지 못 한다. 반면 K-IFRS 을 도입하면 평가방법은 공정가치로 변하고 가치변동은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조정전후 차이가 크면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감사인이 직면한 감사위험은 높아진다.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인에게 신중한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인은 자신의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 감사인은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미와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차별적으로 초기 도입 기업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초기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을 연구하였다.

둘째, IFRS 도입과 관련한 정책기관이 IFRS도입 후의 특성을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감사보수나 K-IFRS 도입여부를 중요한 변수로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 중에 중요한 요소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IFRS도입으로 감사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니 더 연구의미를 갖지는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KOSPI 상장기업 중에서 비금융기업만 표본으로 선정해서 범위가 너무 작아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업종 제한 없이 코스닥 기업을 포함하여 더

많은 표본기업들이 이용하며 연구를 진행한다면 신뢰성이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Barth, M.E. W. Landsman, M. Lang, International Accounting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Francis, J. and Strokes. (1986) Audit Pric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y : Further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30.

Francis,J.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 A Study of the Aus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Jermakowicz E. J. Prather-Kinsey, and I. Wulf. (2007)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come Reported by DAX-30 German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18(3).

Lambetr, R. A., C. Leuz and R. E. Verrcchia (2007)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1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Autumn) : 97-100

Simunic D.A.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

Sharma, D. S. and J. Sidhu. (2001) Professionalism vs. Commercialism : the Association Between Non-Audit Sevices (NAS) and Audit Independance. Financial and Accounting 28

戴華江，閔虹，2008，會計政策變更對我國上市公司影響的實証分析-以滬市公司執行新會計准則為例，中國會計學會高等工科院校分會暨中央在鄂集團企業財務管理研討會。

劉意，徐建，2012，審計風險對審計定价的影響研究-基于我國製造業上市公司的經驗証据，財會通訊：綜合（下）。

孫紅，羅俊，2009，會計准則變革与審計定价-基于中國會計准則改革的經驗証据，會計与財務。

伍利娜，2003，審計定价影響因素研究：來自中國上市公司首次審計費用披露的証据，中國會計評論。

魏振，2010，審計定价的影響因素分析，東北財經大學 碩士學位論文。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10,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권수영, 김문철,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47-76

권수영, 신현걸, 정재영, 2006,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고혁민, 2011, “국제회계기준도입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조기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효중, 2011, “IFRS조기도입 기업의 회계정보 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식, 강선아, 2010, “K-IFRS 조기도입 유인과 성과분석”, 회계저널 .

나금운, 조유근, 신춘우, 조승제, 2012,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 KOSPI 200을 중심으로”, 한국회계정보학회

신용준, 김은, 2010, 소송위험과 재무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여은정, 고윤성, 김지홍, 200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국제회계연구, 19, 175-201

이동욱, 2012, “IFRS도입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우재, 오광욱, 정석우, 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과 기업특성”, 한국회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이은신, 2010, “IFRS 전환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세용, 송혁준, 2005,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비감사서비스와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30

임석식, 김경태, 이영한, 2009,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 및 대책,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임태균, 배성호, 정석우, 2012, K-IFRS의 도입이 주요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제17권 제1호

조장연, 강병민, 2003,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2(1), 153-177

조주현, 2011,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찬영, 2012,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감사인 규모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석일, 2009, 외감법 개정내용 및 IFRS 관련 주요 현안사항,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장욱방, 2012, “IFRS는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가?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기, 2012,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

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1집.

최관,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國際會計准則的引入對審計定價的影響：

以当期純利益調整前后差異為中心

趙偉航

釜慶大學校 大學院 經營系

摘要

本研究以2010年KOSPI上市企業中未引入IFRS的非金融企業為對象，以当期純利益調整前后差異為中心，對國際及會計准則的引入對審計定價的影響進行觀察。

研究結果，審計定價与当期純利益調整前后的差異的絕對值成正相關關係。由于國際會計准則的引入可以判斷当期純利益調整前后的差異越大審計定價則越高。這是因為K-G A A P 准則下的財務報表的評價方法是采用歷史原價，所以市場價格或財產價值的變動无法馬上反應出來。相反引入國際會計准則的話評價方法則變為公允價值，價值的變動可以及時的得到反應。因此当期純利益調整前后差異大的話可以判斷出財務報表的正確性會降低審計師所面臨的審計風險會增高。為了提高會計信息的正確性對於審計師來說則需要投入更多的努力与時間。据此可以判斷作為補償審計師則會要求更高的審計報酬。

本研究的意義和貢獻如下。

第一，与先行研究不同，本研究將早期引入國際會計准則的企業去除，對一般的未提前引入國際會計准則的企業進行研究。

第二，為与國際會計准則的相關的政策機關在政策樹立中能够反應國際會計

准則引入后的特性提供了証据。

第三，國際會計准則的引入對審計定价的影響的先行研究中主要以審計時間和是否引入國際會計准則為主要變量而進行研究。本研究則是以會計信息中重要的要素当期純利益為中心進行研究，因此在學術上則更具有研究意義。

關鍵詞：國際會計准則，審計定价，当期純利益



The Effects of Introduction of IFRS on Audit Fee:
Focusing on The Pre-post Difference of Net Income Adjustment

Zhao, Weih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effect of introducing IFRS on audit fee with difference of before- and after-adjustment of net profit during the term as the center aiming at non-financial enterprise which is not introduced IFRS among the listed companies on the KOSPI in 2010.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audit fee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absolute value of difference between adjusting the front and the rear. We can judge by introducing K-IFRS the larger difference of adjusting sequence of net profit during the term higher audit fee. We cannot reflect immediately fluctuation of a market price or property value because financial statement estimation method under the standard of K-GAAP is historical cost. On the other hand, if we introduce K-IFRS instantly reflect fluctuation of value and evaluation method will change fair value. For this reason, we can judge large difference of adjusting sequence of net profit during the term has low accuracy of financial statement and audit risk facing auditor gets higher. In order to raise accuracy of accounting information, managers

demand careful examination and auditor should spend a lot of time and effort to lower own audit risk. In reward for that auditor can judge to demand high audit fee.

The meaning and contribution points of this research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we studied enterprises which are not introduced early except early adoption companies in contrast with previous studies.

Second, policy authority regarding IFRS introduction can provide basis which can reflect on policy making considering characteristic after IFRS introduction.

Third, previous studies which IFRS introduction effects on audit fee keep studying mainly audit time or whether to introduce K-IFRS or not as important parameter. This research is meaningful by examining some effects on audit fee with net profit during the term of important factor as the center among accounts information.

Key wor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Audit Fee, Net profit